

영어질의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이 상 윤
(한남대학교)

Lee, Sang-Yoon. (2000). A study of transitivity of English claus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6, 159~178.

In systemic grammar an English clause is analysed simultaneously from the point view of its ideational function, interpersonal function and textual function. This study deals with only the ideational function of the three functions, which accounts for the underlying content of a clause. Transitivity is the subsystem of the ideational function. It specifies the different types of process that are recongnized in the language and the structures by which they are expresse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escribe the transitivity of English clause on the basis of systemic approach. For this we analyzed the three subsystems of transitivity which are physical process, mental process and relational process in the form of features. And we described the sets of the features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process in English clause in the framework of the system network.

1. 연구목적

영어절은 각각 다른 기본적인 세 기능인 관념적(ideational),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 형성적(textual) 기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관념적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내적인 의식의 세계와 외적 세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내용이고, 대인적 기능은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화자와 청자간에 전달

* 이 논문은 1999년 한남대학교 교비확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할 말의 유형이며, 텍스트 형성적 기능은 그 내용이 사용되는 상황의 특성과 연관하여 청자에게 뚜렷한 전달메시지가 되도록 메시지를 형성하는 기능이다. 이 세 기능은 하위기능으로 이행성(transitivity), 서법(mood), 주제(theme) 등으로 각각 표현된다. 이 때문에 영어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상호 연관하여 통합적으로 볼 때 비로서 절(clause)의 의미가 적절하게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 의미선별체(sets of options)로 이루어졌다.(Halliday, 1970: 142-144, 1981:138-140, Kress, 1976: 88-91)

본 연구는 영어절의 의미를 위에서 언급한 세 기능 중에서 절의 내용과 연관된 관념적 기능에만 국한하여, 관념적 기능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관념적 기능의 하위체계 기능인 이행성¹⁾의 의미자질을 분석하고, 이들을 체계망상모형(systemic network)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체계문법 입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Halliday, 1973, 1981, Kress, 1976)

II. 영어절 구조의 이행성에 관한 의미분석

영어절²⁾에서 이행성은 내용을 표현하는 문법적 기능이다. 이행성은 영어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른 유형의 과정(process)들과 이 과정들이 표현되는 구조들을 상술하는 것이다. 영어절이 나타내는 이행과정은 (1) 과정자체 (2) 과정내에 참여체 (3) 과정과 연관된 주변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틀이 바로 우리의 내적 외적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의미틀이름 하는 틀을 제공한다.(Halliday,1985:101) 다시 말하면, '과정

-
- 1) 이행성은 서술어의 상위개념인 이행과정의 유형들과 명사에 해당하는 참여체와의 관계, 속성들과의 관계, 부사에 해당하는 주변환경적 특성들과의 관계성 등을 표현하는 총칭이다.(Berry,1975: 150, Kress,1976: 159, Morely,1985: 6)
 - 2) 절이란 의미적으로 세 종류의 다른 의미 즉 메시지로서의 절, 교호작용으로서의 절, 내용으로서의 절과 같은 의미기능들이 하나로 결합된 계층적 단위 개념이다. (Halliday, 1985:32-37. 참조: Berry, 1975: 93-94, 105-106, Muir, 1978: 92-93, Moley, 1985: 8-9)

(process) '참여체(participant)' '환경(circumstances)'의 개념들은 언어적 구조로서 표현되는 현실 세계의 현상을 설명해주는 의미범주들이며 문법적으로는 이 세 요소들이 동사, 명사, 부사나 전치사구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

the lion chased the tourist lazily through the bush
 (participant) (process) (participant) (circumstance) (circumstance)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면 거기에는 어떤 류의 이행과정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다음의 예:

- [1] John kicked the ball by accident.
- [2] John saw Mary on Tuesday.
- [3] Beauty is only skin deep.

[1]-[3]은 'kicking', 'seeing', 'being'과 같은 세 유형의 이행과정을 보여 준다. 'kicking'은 행위를 나타내므로 이를 '행위과정' 혹은 '실질과정(physical process)', 'seeing'은 의식을 나타내므로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 'being'은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으로 범주를 각각 설정한다. 이들은 이행성의 하위범주이며 앞으로 이들 각각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려고 한다.

1. 영어절의 실질적 행위과정 분석

다음 예문을 보자. 예:

- (1) The barber shaved ten customers.
- (2) The soldiers marched.

영어절을 타동성의 입장에서 볼 때 동사적 이행 과정이 행위적이냐 혹은 속성적(attribution)이나 하는 것이다. 위의 (1)-(2)와 같은 절은 과정이 행위적 특성이다. 이와 같이 '행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절을 자질적으로 그 특성을 [effective]라고 표시한다. 이러한 절의 이행과정은 행위자(actor)와

목표대상(goal)과의 관계를 다룬다.

다음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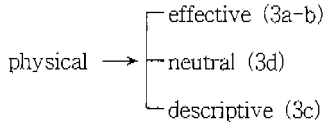
- (3) a. The barber shaved ten customers.
 b. Ten customers were shaved.
 c. The soldiers marched.
 d. John opened the door.
 The door opened.
 The door was opened by John.

(3)을 의미적으로 보면 (a)에는 행위과정에 주어인 행위자와 보충어인 목표대상 즉 2개의 참여체(participant) 명사가 이행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반면 예 (b)는 수동절로서 1개의 참여체만이 이행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주어자리의 목표대상은 논리적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행위의 목표대상이며,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비록 행위자가 절 마지막에 부사구로 있으나 계속해서 행위자로 있다. (c)는 능동적 서술어는 있지만 보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a)와 (c)의 차이는 (a)에는 능동적인 서술어 다음에 따라 오는 보충어가 있으나 (c)에는 보충어가 없이 능동적 서술어만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a)에는 2개의 참여체 즉 행위자(주어)와 목표대상(보충어)이 이행과정인 동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c)에는 다만 한 참여체인 행위자만이 행위과정인 동사에 연관되어 있다. (b)에는 선택적이지만 2개의 참여체인 목표대상(주어)과 절의 마지막에 생략되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부사구 행위자가 있다. (d)는 참여체의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절의 이행과정에는 하나나 혹은 둘의 참여체가 결합되며 의미적으로 동일한 뜻을 갖는다. 따라서 (3)의 (a)와 (b)는 같은 특성을 가진 절로 볼 수 있지만 (c)는 다른 절의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a)-(b)는 [effective]로 (c)는 [descriptive]로 (d)와 같은 절은 [neutral]로 그 특성을 세분한다.

이를 의미체계모형(system)³⁾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의미체계는 추상적인 의미관계의 모형으로서 시작조건(entry condition)과 선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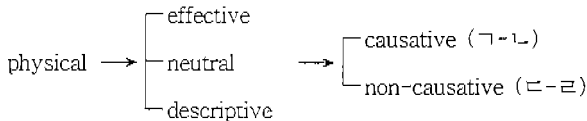


(3d)를 다시 보자. 다음의 예:

- (ㄱ) John opened the door.(=John caused the door to open)
- (ㄴ) Mary warmed the milk.(Mary caused the milk to warm)
- (ㄷ) The door opened.
- (ㄹ) The milk warmed gradually.

(ㄱ)-(ㄴ) 같은 유형의 절은 항상 두 개의 참여체가 일어나며, 의미적으로는 '원인행위'의 뜻이다. 반면에 (ㄱ)-(ㄴ)과 같이 쌍을 이루는 (ㄷ)-(ㄹ)은 하나의 참여체가 일어나며 이 경우에는 원인행위의 뜻이 없어진다. 따라서, (3d)와 같은 [neutral]한 (ㄱ)-(ㄴ)은 [causative]한 자질로, (ㄷ)-(ㄹ)은 [non-causative]한 자질로 더 세분된다. 이를 체계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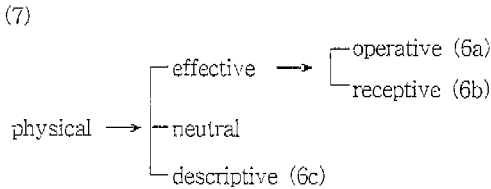


다시, 다음의 예를 보자.

- (6) a. The barber shaved ten customers.(=3a)
- b. Ten customers were shaved.(=3b)
- c. The soldiers marched.(=3c)

체절(choices)로 이루어졌다.(Halliday, 1981: 56-57, Huddleston, 1981: 58-65, Butler, 1985: 40-44)

(6)의 (a)-(b)는 [effective] 절이다. (a)는 주어를 행위자로, 보충어를 목표 대상으로 하고 있다. (b)는 주어를 목표대상으로, 부사절은 행위자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절을 자질특성으로 표시하면 (a)와 (b)는 각각 [operative]와 [receptive]의 자질로 [effective] 절이 더 세분된다. 그리고 [operative]와 [receptive] 둘 중 어느 한 자질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effective] 자질을 시작조건(entry condition)으로 하고 있다. 다음:



다음의 예를 보자.

- (8) a. That barber shaved well.
b. The sergeant marched.

(8)의 (a)와 (b)를 의미적으로 비교해보면 (a)의 경우는 보충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도 보충어가 있을 때와 같이 의미풀이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더 제시한다. 다음:

- (9=8a) a. That barber shaved well.
b. That barber shaved (people) well.
c. Mother washes on a Monday.
d. Mother washes (the clothes) on Monday.

(8b)에 해당하는 예를 더 제시한다. 다음:

- (10=8b) a. The sergeant marched.
b. The sergeant marched the soldiers.
c. He sank.
d. He sank the boat.

(8a)는 (9)의 (a-b), (c-d)처럼 의미풀이가 되지만 (8b)는 (10)의 (a-b), (c-d)처럼 의미풀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유사하게 보이지만 (8a)와 (8b)가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은 이행과정이 목표 지향적이냐 아니냐 하는데 달려 있다. (8a)는 목표대상을 지향하는 이행과정으로 두 참여체 즉 '행위자'(actor)와 '목표대상'(goal)과의 관계성을 다룬다. (8b)는 목표대상에 대한 지향성이 없는 이행과정으로 첫째 참여체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 행위자(initiator)이며 실제 행위자(actor)와 구별된다. 따라서 (8a)는 [action-directed], (8b)는 [action-undirected]로 자질특성이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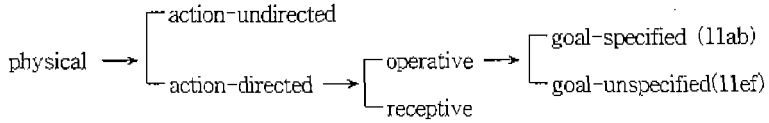
다시, 다음의 예를 보자. 다음:

- (11) a. The barber shaved ten customers.
 b. Mother washes the things.
 c. Ten customers were shaved by the barber.
 d. The things were washed by mother.
 e. He shaved.
 f. Mother washes.

(11)의 (a)-(f)는 [effective, action-directed]의 자질특성을 가진 절로서 이행과정이 대상목표를 향하여 지향성을 갖는 절이다. (g)-(h)는 [descriptive, action-undirected]한 특성을 가진 절로서 이행과정이 비지향성을 갖는 절이다. 특히, (a)-(b)는 보충어 자리에 대상 목표어가 나타나 있지만 (e)-(f)는 보충어 자리에 대상 목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의미 자질로 표시하면 (a)-(b)는 [goal-specified], (e)-(f)는 [goal-unspecified]의 자질로 세분된다. 그리고 (a)-(b)와 같이 [action-directed, goal-specified]의 절은 (c)-(d)와 같은 수동절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effective, action-directed]의 자질특성을 가진 절은 [goal-specified]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operative]와 [receptive]한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a)-(b)처럼 [goal-specified]한절이 되느냐 혹은 (e)-(f)처럼 [goal-unspecified]한 절이 되느냐 하는 선택은 [operative]의 자질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를 체계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12)



다음을 보자. 예:

- (13) a. The customers were shaved by the barber.
 These clothes have been washed.
 b. He shaved easily.
 These clothes wash well.

(13)에서 (a)는 [effective, action-directed]의 자질을 가진 절로서 [operative]와 대조가 되는 [receptive]의 자질특성을 나타내는 절이다. (a)와 (b)의 차이는 (a)는 서술부가 수동적 동사그룹이며 (b)는 서술부가 능동적 동사그룹이다. 전자는 행위자를 포함한 부사구가 강조역할을 함으로 행위자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절이며, (b)는 동사의 이행과정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이는 절이다. 특히, 이런 경우는 거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따르곤 한다. (b)에 해당하는 예를 더 보자.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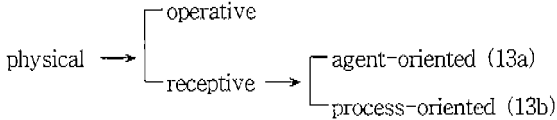
- (14) a. They wash easily.
 b. These books sell well.
 c. This material wears well.
 d. This coat buttons easily.
 e. This poem recites beautifully.
 f. These clothes wash well.

(13)에서 (a)와 같은 상황을 자질로 그 특성을 표시하면 [agent-oriented]로, (b)는 [process-oriented]로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자질특성 중 어느 한 선택이 일어나려면 [receptive]의 자질특성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체계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다음을 보자. 예:

- (16) a. The sergeant marched the soldiers.
 b. The barber shaved ten customers.
 c. Ten customers were shaved.
 d. The soldiers marched.
 Mary danced round the room.
 Aunt Jemina will live for a long time.
 e. He shaved. (i.e. shaved himself)
 Mary washed. (i.e. washed herself)

(16)의 (a)에서 주어는 선도자의 역할을, (b)에서 주어는 행위자의 역할을, (c)에서는 주어가 대상목표이다. 반면에 (d)에서 주어는 선도자 혹은 행위자의 역할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경우 (d)는 (a)-(b)와 구별하여 [middle]의 자질을 특성으로한 절이다. 마찬가지로, (e)도 [middle]의 자질을 특성으로 갖는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주어가 보충어와의 재귀성을 보여 두 역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non-middle]의 이행동사는 언제나 ‘행위자-대상목표’와 결합하지만 [middle]의 경우는 거의 행위자만 연관된다. 이와 같은 자질은 (d)와 같이 [descriptive] 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e)와 같이 [effective] 절에도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a)-(b)는 [non-middle]의 자질을 특성으로 (d)와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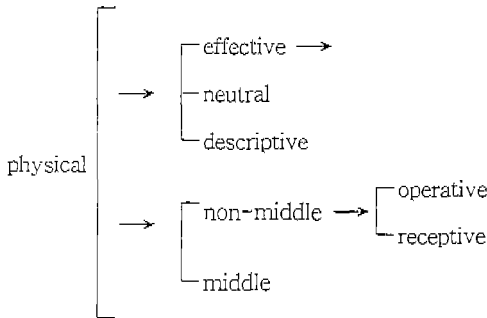
(16)을 의미자질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ffective, operative, non-middle]: The barber shaved ten customers.
 [effective, receptive, non-middle]: Ten customers were shaved.
 [effective, middle]: He shaved. (i.e. shaved himself)
 Mary washed. (i.e. washed herself)

[descriptive, operative, non-middle]: The sergeant marched the soldiers.
 [descriptive, receptive, non-middle]: The soldiers were marched.
 [descriptive, middle]: The soldiers marched.

다시, (16)을 의미체계모형으로 정리하면 [effective v.s. descriptive]와 [non-middle v.s. middle]의 두 체계모형은 의존관계가 아니라 동시적⁴⁾ 관계를 이룬다.

다음: (17)



다음의 예를 보자. 다음:

4) 의미선별체론 범립적 입장에서 기술할 때 선별체들이 공통적인 의미영역을 전제로 하여 대조될 이룰 경우 의존적 관계라 하며 '[기호(either A or B)]을 쓰고, 체계모형이 다른 체계모형과 독립적이면서 상호공통적인 의미영역을 전제로 할 경우는 동시적 관계라 하며 '[기호(both A and B)]를 쓴다. (Halliday & Martin, 1981: 10:11, 56-57. 참조: Halliday & Fawcett, 1987: 15-24)

- (18) a. John kicked the ball by accident.
 b. Peter swam to the island.
 c. A stream flows through that part of the valley.
 d. The car backfired nois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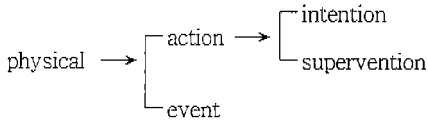
(18)의 이행과정은 모두 ‘행동과정’(action process)을 나타내는 절이다. 그러나 (a)-(b)와 (c)-(d)는 서로 다른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행위자인 참여체가 유정적(animate) 자질특성을 갖고 있으며, 후자는 비유정적(inanimate) 자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두 유형의 차이를 자질로 표시하면 전자는 [action], 후자는 [event]의 자질특성을 가진다.

다시, 다음을 보자. 예:

- (19) a. Peter swam to the island.
 b. Tiddles chased a mouse.
 c. John tripped over a stone.
 d. Aunt Jemina dropped the tea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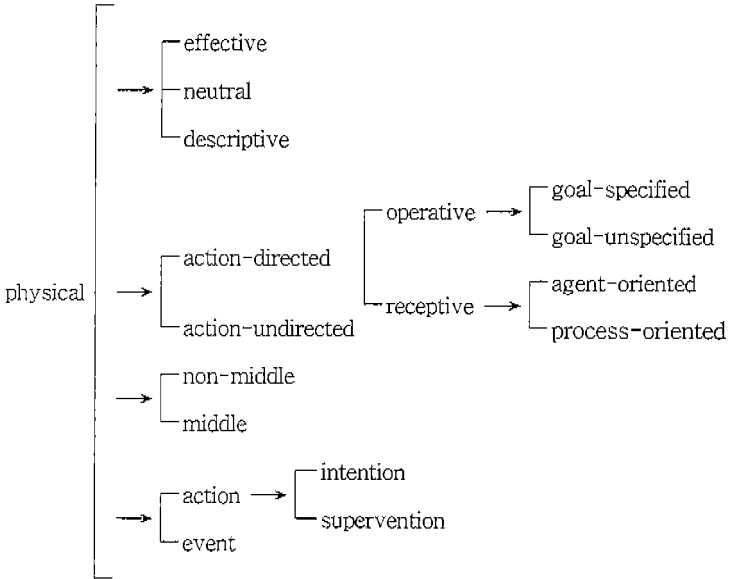
(19)은 모두 [action]의 자질을 가진 절이다. (18)의 (c)-(d)와 같이 [event] 자질을 가진 절은 참여체가 비유정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이행 과정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19)의 참여체는 유정적이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과정이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시 절의 특성을 세분하여 규정지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보면 (a)-(b)는 행위자인 참여체가 자발적(voluntarily)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이행과정이고 (c)-(d)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이행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각각 자질로 표시하면 전자는 [intention], 후자는 [supervention]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자질이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은 [event]와 대조가 되는 [action]을 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체계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지금까지 II.1.에서 기술해온 실질적 이행과정(physical process)을 종합하여 큰 의미체계모형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

(21)



2. 영어질의 정신적 이행과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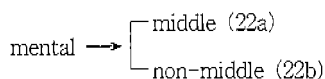
다음 예문을 보자. 다음:

- (22) a. Everyone liked the play.
- b. The play pleased everyone.

(22)는 정신적 이행과정(mental process)의 절이다. 이런 유형의 절은 느끼거나(feeling) 생각하거나(thinking) 지각하는(perceiving) 의식적(conscious)인 요소를 주요 특성으로 갖는다. 이런 유형의 절은 행위자-대상목표(actor-goal)와 같은 입장에서 설명되기보다는 느낌자(senser)와 현상(phenomenon)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a)에서 everyone은 느낌자 이고 the play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b)에서 the play는 현상이고 everyone은 느낌자이다. (a)에서 everyone은 의식(consciousness)이 관여된 영향을 받는 참여자(affected participant)이며, (b)에서 주어인 play는 원인행위자(causer)이다. 이와 같이 쌍을 이루는 절이 가능한 (a)와 같은 절을 자질특성으로 표시하면 [middle]이며, 이와 대조가 되는 (b)와 같은 절은 [non-middle]의 자질을 특성으로 갖는다. (a)와 (b)가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을 체계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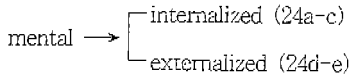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4) a. John saw the lion.
 b. He liked the play.
 c. John considered the matter gravely.
 d. John said that yesterday.
 e. The curate announced the next hymn.

(24)의 이행과정의 특성을 관찰해 보면 (a)-(c)에서 'seeing', 'liking', 'considering' 등은 느낌자(senser)의 내적 의식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d)-(e)에서 이행과정은 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발화시키는 외향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a-c)와 (d-e)를 자질특성으로 표시한다면 전자를 [internalized], 후자를 [externalized]로 세분한다. 이런 상황을 체계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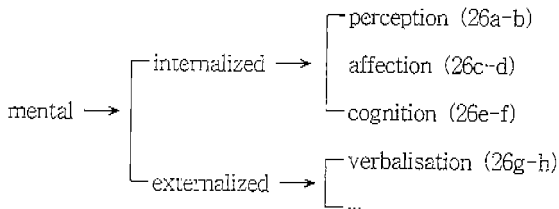


다음의 예를 보자.

- (26) a. John saw the lion.
 b. The crowd listened intently.
 c. He liked the play.
 d. Caesar hated lean men.
 e. John considered the matter gravely.
 f. Theodore knows the truth.
 g. John said that yesterday.
 h. The curate announced the next hy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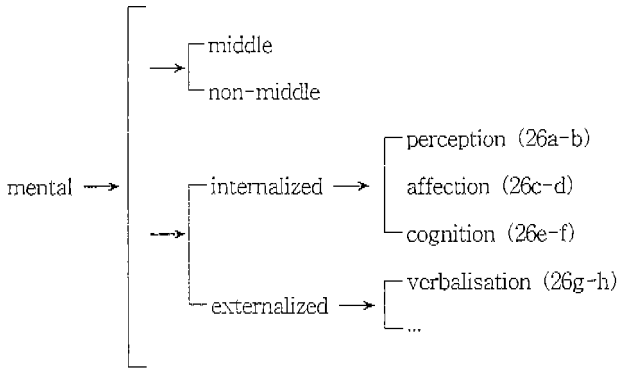
(26)의 (a-f)와 (g-h)는 [internalized]와 [externalized]의 자질특성을 각각 갖는 절이다. 이를 특성별로 더 자질을 세분해 보면 (a)-(b)는 [perception] 자질을, (c)-(d)는 [affection] 자질을, (e)-(f)는 [cognition] 자질을, (g)-(h)는 [verbalisation] 자질을 하위유형의 특성으로 갖는다. 이를 체계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지금까지 정신적 이행과정에 관한 절에서 기술한 절의 자질특성을 종합적으로 한 체계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관련적 이행과정들(relational process)은 'being'의 과정들로서 이런 유형의 절이 갖는 중심적인 뜻은 어떤 것(to be something)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을 생각해 본다. 예:

- (29) a. John is the leader.
 b. John is a good leader.
 c. John is/seems happy.

(29)는 타동성 유형(transitive pattern) 입장에서 본다면 [extensive]와 대조가 되는 [intensive] 절이다. 이런 절에서는 각 속성(attribute)이 보충어 자리에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관련적 이행과정'은 속성을 가진 실체자(attribuant)를 그 속성(attribute)과 관련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절을 [middle]의 자질로 표시한다.

다시, 다음을 본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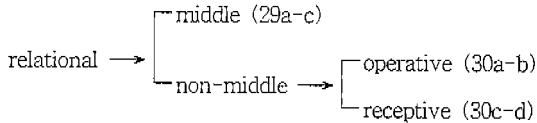
- (30) a. Max considers her a clever girl.

- b. John made her happy.
- c. She is considered a clever girl.(by Max)
- d. She was made happy.(by John)

(30)에서 주어진 각각 속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도자(intiator)로서 속성할당자(atributor)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재자(attribuant)는 [extensive] 절의 보충어로 설명을 하고, 실체자의 속성(attribute)은 [intensive] 절의 보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유형과 같은 절을 (29)의 자질특성인 [middle]과 대조하여 [non-middle]의 자질로 표시한다. (30)의 (a)-(b)와 같은 절은 [non-middle, operative] 자질을 특성으로 갖는다. 이러한 절은 (c)-(d)와 같이 실재자(attribuant)를 주어로 하여 실재자의 속성(attribute)을 수동형식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절을 [non-middle, receptive] 절이라 하며, [non-middle, operative]한 유형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상황을 체계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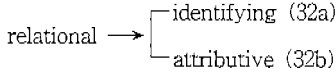
다음 예문을 보자.

- (32) a. John is the leader.
(The leader is John.)
- b. John is a good leader.

(32)의 (a)에서 John은 the leader와 동일시 되고 또한 the leader가 실재체(attribuant)인 John과 동일시 되고 있다. (b)에서 John은 good leader로 분류되고 good leader는 John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32)에서 (a)와 같은 절은 [identifying] 자질을, (b)와 같은 절은 [attributive] 자질을

특성으로 나타낸다. 이런 상황을 체계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다시, 다음을 보자. 예:

- (34) a. Tom is the leader. (The leader is Tom.)
 b. Tomorrow is the 10th. (The 10th is tomorrow.)
 c. The piano is Peter's. (Peter's is the piano.)

(34)는 [identifying]을 나타내는 절로서 한 실재자가 또 다른 실재자를 동일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두 실재자 사이의 관계성이 (a)는 Tom에 대하여 지도자라고 하는 '표시와 가치'(token-value)를 한정하여 관계성을 동일시키고 있으며, (b)는 tomorrow에 대한 현상(phenomenon)과 시간적 환경(circumstance)의 관계성을 동일시키고 있으며, (c)는 piano가 Peter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물(possession)과 소유자(owner)의 관계성을 동일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의 구조적 기능은 동일시화(identified) 되는 기능과 동일함을 증명해주는(identifier) 기능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identified-process-identifier'구조를 이룬다. (34)와 같이 [identifying]한 절은 각각 두 관계성의 특성을 자질로 표시하면 (a)는 [intensive], (b)는 [circumstantial], (c)는 [possessive]로 자질을 더 세분된다.

다시, 다음을 보자.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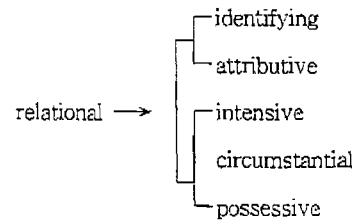
- (35) a. Tom is wise.
 b. The fair is on Tuesday.
 c. Peter has a piano.

(35)는 [attributive]한 특성을 가진 절로서 한 속성이 어떤 실재체에 관한 것을 특징지어 주고 있다. (a)는 Tom 대하여 wise한 특성을 한정하고 있으

며, (b)는 the fair에 대하여 시간적 환경을 Tuesday로 특성 짓고 있으며, (c)는 Peter가 piano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특성 짓고 있다. (a)-(c)에서 'wise', 'on a Tuesday', 'piano'는 각 주어에 대한 특성을 뚜렷하게 정의해주는 속성(attribute)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조적 기능으로 보면 (35)의 모든 절은 'carrier-process-attribute'의 기능들로 이뤄져 있다. (35)와 같은 [attributive]한 절의 특성도 (34)와 같이 각 절의 자질을 (a)는 [intensive], (b)는 [circumstantial], (c)는 [possessive]로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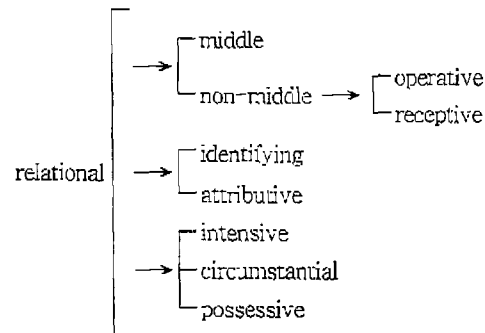
(34)와 (35)를 체계모형으로 정리해 본다.

(36)



지금까지 기술한 (31), (33), (36)의 체계모형을 하나의 큰 체계망(network)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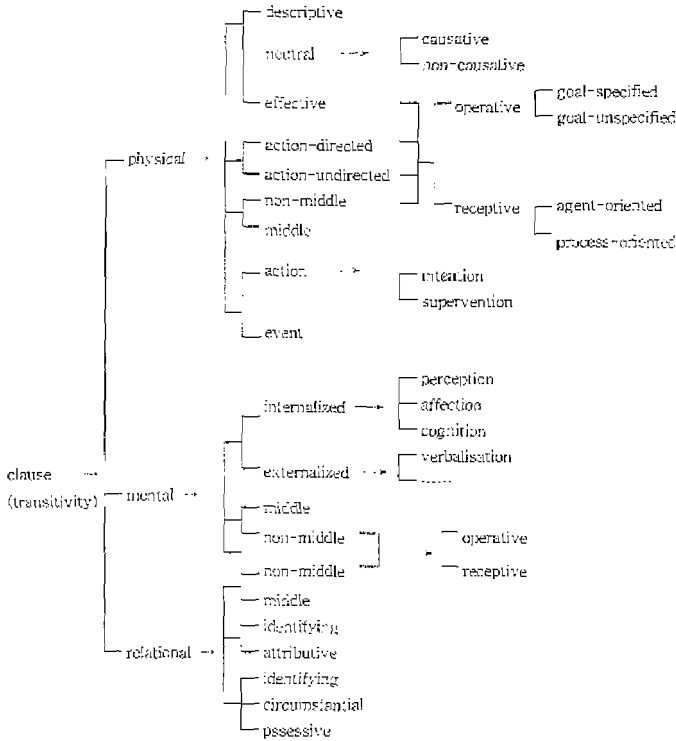


III. 결 론

지금까지 영어절을 구성하는 기능 중에서 관념적 기능의 하위체계인 이행성의 의미가능체를 실질적 과정, 정신적 과정, 관계적 과정 별로 의미자질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자질을 각 범주가 어떻게 선별잠재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체계모형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성에 관한 각 범주의 의미체계를 종합하여 하나의 큰 의미망상체계를 만들었다.

다음:

(38)



5) 의미체계 망상(network)은 의미체계(system)의 집합모형이다. (Berry, 1975: 138. 참조: Butler, 1985: 40-44)

참 고 문 헌

- Berry, M. (1975). *Introduction to systemic linguistics*. London : Batsford.
- Butler, C. S. (1985). *Systemic linguistics: Theory and applications*. London: Batsford.
-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al and language function. In J. Lyon (Ed.), *New horizens in linguistics*. Halliday, M. A. K. (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1981). Options and functions in the English clause. In M. A. K. Halliday & J. R. Martin (Eds.),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London: Batsford.
- Halliday, M. A. K., & Martin, J. R. (Eds.). (1981).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 Halliday, M. A. K., & Robin, P. F. (Eds.). (1987). *New development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 Huddleston, R. A. (1981). The systemic features and their realization of the English clause. In M. A. K. Halliday & J. R. Martin (Eds.),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 Kress, G. R. (Ed.). (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orley, G. D. (1985). *An introduction to systemic grammar*. Macmillan.
- Muir, J. (1978). *A modern approach to English*. London: Batsford.